

초록번호 21-1

제 목	국 문	한국 의료보험 수가코드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영 문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medical procedure code system for health insurance		
저 자 및 소 속	국 문	박은철, 김영삼, 이대희, 손명세, 김한중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영 문	, Eun-Cheol Park, Young-Sam Kim, Dae-Hee Lee, Myongsei Sohn, Han-Joong Kim <i>Institute of Health Services Research, Yonsei University</i>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이대희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1998년 12월			
<p>1. 연구 목적</p> <p>현행 의료보험 수가코드체계가 갖는 문제점이나 한계점등을 분석하고 운용체계의 변동이나 관련 인력들이 갖는 혼란을 최소화 하면서 앞으로의 의료기술의 발전이나 의료행위의 정보화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코드체계의 개선안을 만든다.</p> <p>2. 연구 방법</p> <p>첫 번째 단계로 현행 의료보험 수가코드체계를 바람직한 코드체계가 갖추어야 할 일반적 특성인 계층에 대한 예측 가능성, 간결성, 단순성, 신축성, 조기성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p> <p>두 번째 단계로 한국표준의료행위분류 항목들에 대해 ICD-10-PCS의 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을 수행하므로써 한국표준의료행위분류에서 사용된 행위기술의 방식과 용어들에 대한 분석과 해부학적 부위, 행위의 종류, 접근방법등에 따라 재분류된 자료등을 얻었다.</p> <p>세 번째 단계로 위의 과정에서 밝혀진 현행 의료보험 수가코드체계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의료보험 수가코드체계의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때 해부학적분류코드와 행위분류코드등의 효율적인 배정을 위하여 ICD-10-PCS에 의해 재분류된 한국표준의료행위분류의 자료를 활용하였다.</p>				

3. 연구결과

새로 만든 의료보험 수가코드체계는 코드체계의 변화로 인한 혼란과 추가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꼭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처치 및 수술료', '방사선진단', '임상병리'부분에 대해서만 조합형다축체계코드의 개념을 적용한 새로운 코드체계를 제시하였고 나머지 부분들은 앞으로의 확장성 및 실질적인 활용도를 고려하여 대분류체계를 정리 하였다. 대분류에 있어서 9개분야를 다른 대분류와 통합하였고 '처치 및 수술료' 부분의 대분류를 11개로 늘렸다.

각 대분류 아래에 소분류 I, II를 두어서 해부학적 분류, 행위분류, 촬영방법, 검사체의 종류등 각 대분류의 특성에 따른 세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소분류중 행위분류는 다양하고 복잡한 시술들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31개의 기본행위를 설정하고 각 행위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 예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일련번호를 두자리로 늘려 새로운 항목의 추가나 수정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기본코드의 총 자리수는 5자리로 변함이 없으나 소분류에 있어서는 알파벳과 숫자를 함께 사용하여 포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늘렸고 각 소분류 코드별로 의미부여가 되어있어 코드만을 보고도 각 항목에 대한 대략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산정코드는 현행대로 3자리를 유지하되 이전에 기본코드에 포함되어 있던 촬영매수와 마취시간등도 포함시키도록 조정하였다.

4. 고찰

새로운 개념의 조합형다축체계코드를 의료보험 수가코드체계에 적용하여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온 수가코드의 확장성을 대폭 개선하고 앞으로 의료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보다 더 선진화된 면모를 보일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가장 바람직한 코드체계의 개발은 분류체계의 개발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작업은 기존의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의 진료항목에 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이므로 행위분류 자체가 갖는 구조적 한계로 말미암아 보다 더 발전된 개념의 코드체계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코드체계의 변화로 인한 기존의 전산화된 운용체계의 교환과 관련인력 교육등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만들었으므로 불가피하게 기존의 코드체계가 갖는 문제점중 일부분은 그대로 지닐 수밖에 없게 되었다.

추후에 분류체계의 대대적인 개선과 더불어 보다 더 발전된 코드체계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